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발행인의 데스크



미국 대통령은 과연 세계 대통령인가?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런닝 메이트 카말라 해리스

왜 캐나다 국민들은 오히려 남쪽나라 미국의 정치 동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

내각책임제와 지방 자치제가 확립되어 있는 캐나다 국민들이 정치 동향을 관망하는 멘탈리티가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와 중앙집권제에 익숙한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마뜩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캐나다 연방정계의 제일 야당 보수당 당수 선거가 8월 23일에 실시된다. 물론 보수당 소속 당원들만이 투표하는 선거이지만 캐나다 국민들은 아랫 동네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 같다.

제 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11월 3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식은 2011년 1월20일에 백악관에서 거행하게 된다.

집권당인 공화당 소속 현 대통령 트럼프(74세)가 부통령 마이크 펜스를 런닝메이트로 뽑아 재선에 도전한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전직 부통령 조 바이든(77세)을 이 대통령 입후보자로 공천받아 카말라 해리스(55세)를 부통령 후보로 선발하여 러닝메이트로 달리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는 누구인가?

해리스는 부계는 침례교 신앙을 지닌 자마이카 흑인, 모계는 남인도계 타밀족 출신이다. 카말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이라고 한다.

해리스가 7살 되던 해에 이



혼한 아버지는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학자였고 어머니는 마생물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한 연구원이었다고 한다.

혼혈인 해리스는 자신을 흑인 유전자를 지닌 흑인 혼혈이라고 자처한다고 한다. 법대를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로 활약하던 검사는 흑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강직한 성품의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주검찰청장으로 일하면서 강경 일변도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소위 백인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북미주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불합리한 처사를 경험하며 살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바이든 대통령 출마자의 런닝메이트로 발탁된 자마이카 흑인 아버지와 극빈한 타밀족의 어머니 슬하에서 그 것도 부모들이 이혼하는 소위 결혼 가정에서 흑인

으로 성장하여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장 그리고 미 상원의원이라는 신분을 확보하기 까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미국 부통령 후보로 소위 지명차출반은 입지전적인 여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한국계 이민자인 우리들에게 해리스의 스토리는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금년 1월 말에 해리스가 바이든 지지를 고민중이라는 이야기가 측근으로부터 흘러나와 바이든의 러닝메이트 자리를 노리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경선 초반 바이든의 부진 이후에는 타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 없이 계속 관망하며 지나다가 결국 수퍼 화요일에 바이든이 승리하자 3월 8일, 전격적으로 조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3월 16일에 열린 바이든과 샌더스의 1대1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면 여성 부통령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삼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워런과 함께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 마라톤에 오르고 있었다.

해리스는 과거 경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을 상대로 버싱 논란 등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날을 세웠던 적이 있다. 그러나 7월말 사진에 찍힌 바이든의 기자회견장 메모에는 카말라 해리스의 이름이 가장 위에 올라 있고, 경선 당시의 앙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적혀있어서 도리어 러닝메이트로 유리해졌다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과정에서 민주당 내 다른 흑인 여성 정치인들도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경쟁자가 늘어났고, 과거 검사로 일했던 경력이 흑인 표를 얻는데 도리어 불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중이다.

결국 막바지까지 수전 라

이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과의 경쟁 끝에 조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선택되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보다 10퍼센트 이상 우세인 바이든이 70대 후반의 고령이라서 바이든이 임기 도중 건강 등의 문제로 유고 상태에 놓여 카말라가 대통령 직을 승계하고 재선까지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전임 대통령의 유고로 부통령이 후임 대통령직을 자동 승계한 마지막 사례가 1974년 리처드 닉슨의 하야로 직을 승계한 제럴드 포드였는데, 비록 카터에게 패하긴 했지만 그 역시 닉슨의 잔여 임기를 마무리한 후인 1976년 대선에 도전한 바 있다.

2020년 대선에 나선 양당의 러닝메이트들 중 유일한 50대 후보로서 가장 젊다. 유력 언론들은 이 사실을 통해 미국 정치권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노령화됐는지 알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부통령 후보로서 바이든과 함께 가진 첫 기자회견 연설에서 미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규정했다.

조 바이든이 부통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를 선택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54%가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

카말라 해리스 미 상원 의원

카말라 데비 해리스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소속의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 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1964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사말라 고팔란은 인도의 타밀 가족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한 유방암 전문 과학자였다.

출생: 1964년 10월 20일 (55세),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국적: 미국

키: 1.57m

배우자: 더글라스 엠호프 (2014년 -)

부모: 도널드 J. 해리스, 시야말란 고팔란

학력: UC 헤이스팅스 칼리지 오브 더 로 (- 1989년)

코로나19 청정 美 마을 "국경 열어주세요"



트와센 남쪽 위치한 '포인트 로버츠' 국경봉쇄로 사실상 '가택연금' 처지

여전히 미국에서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와중에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미국 마을이 있다.

바로 BC주 트와센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구 약 1500명의 작은 마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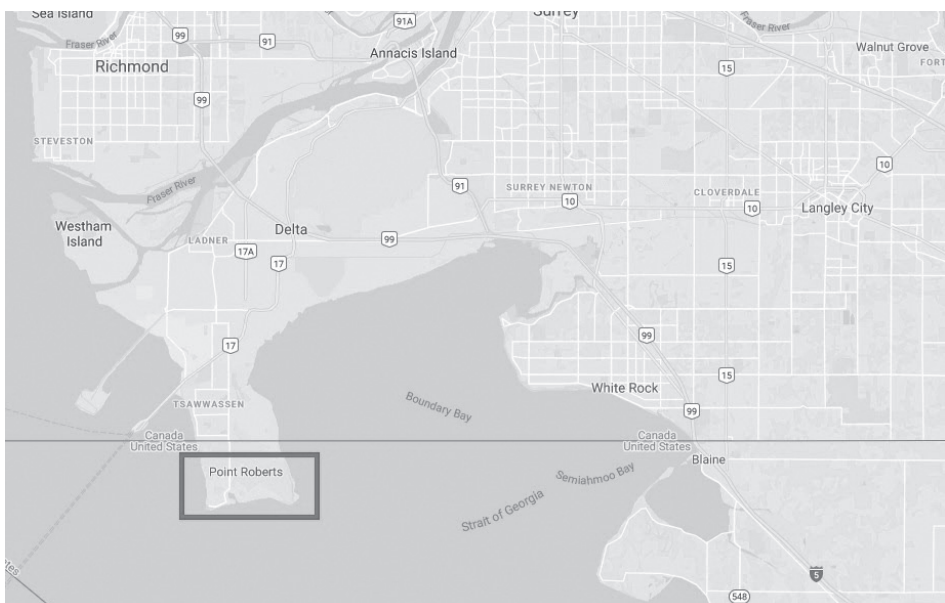
로버츠(Point Roberts) 이야기다.

포인트 로버츠는 북쪽으로는 캐나다와 만나고 나머지 3면은 바다로 둘러 쌓여 있어 지도를 보면 캐나다 땅으로 보기 쉽지만, 엄연히 워싱턴주에 속해 있는 미국 영토이다.

캐나다가 자치령이 되기도 전인 180년 전, 미국과 영국이 협의 끝에 영국령 캐나다-미국의 국경을 위도 49도로 정

하게 됐는데, 포인트 로버츠는 미국이 아닌 캐나다 영토와 붙어있음에도 위도 49도 남쪽으로 손뚱처럼 빠져 나와 있기 때문에 미국령에 속하게 된 것이다.

미국 영토지만 미국과는 떨어져 있고 캐나다와 붙어있는 특이한 지리적 상황 때문에, 포인트 로버츠는 경제 활동도 캐나다 관광객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이곳만의 색다른 분위기와 멋진 바다 풍경으로, BC



주민에게도 인기 여행지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도 폐쇄되면서, 포인트 로버츠의 국경 역시 굳게 닫히게 됐다.

포인트 로버츠에서 미국 본토를 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서 바다를 건너지 않는 이상 캐나다 국경을 한번은 넘어야 하기 때문에, 국경 봉쇄로 인해 1500명의 거주민들은 필요한 물품조차 쉽

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캐나다 관광객도 끊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이 지역 주민들은 포인트 로버츠만큼은 국경 봉쇄 조치에서 면제해줄 것을 양국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포인트 로버츠의 크리스토퍼 칼튼(Carleton) 소방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게 "포인트 로버츠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

음에도 가택연금과 다음없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C주 존 호건 수상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포인트 로버츠의 사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지만, 국경 봉쇄에 대한 결정은 연방 정부의 몫이라며 선을 그었다.